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 다 나 은 정 부
	배포일시	2019. 3. 5.(화), 14시30분 총 8매(본문5, 참고3)	
담당 부서	항공산업과	담당 자	·과장 김도곤, 사무관 노지훈 ·☎ (044)201-4219, 4223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여부 결정

- 플라이강원, 에어프레미아, 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발급 -

- ◆ '1년내 운항증명(AOC) 신청 및 2년내 취항' 조건부 면허
- ◆ 3년간 거점공항 유지, 재무건전성, 안전 확보 등 사후관리 철저
- ◆ 항공시장 혁신 및 소비자 편익 기대, '22년까지 2천여명 신규채용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 (여객: 4, 화물: 1)에 대해 면허자문회의(3.5)*의 최종 자문을 거쳐, 플라이강원, 에어프레미아,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.

* 법률·회계·항공·안전·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4인 참석

추진 경과

- 국토교통부는 면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사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, 심사기준·절차를 미리 발표('18.10.8)한 바 있으며,
 - 구체적인 심사항목으로는 면허 결격사유(임원자격, 범죄경력 등)와 물적요건(자본금·항공기) 구비여부, 사업계획의 적정성(노선·항공수요 확보 가능성), 재무능력, 항공안전, 이용자 편의 등이 있다.

- 신청사들이 제출한 **사업운영계획서**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관련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T/F를 통해 분야별 **면허기준 충족여부**(항공안전, 공항용량·운수권 등 노선확보가능성 등)를 **심층** 심사하였고,
 - **국책연구기관**(교통연구원)에 의뢰해 신청사의 **수요확보** 가능성, 재무능력 등에 대해 **전문적인 검토**를 하였다.
 - 또한,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·지자체·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**의견수렴**(‘18.11.16.~11.27), **전문가 자문** 등을 거쳤다.

심사 결과

- **플라이강원**은 자본금 378억원, '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(B737-800)으로 **양양공항**을 기반으로 중국·일본·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.
 -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**결격사유는 없으며**, 자본금 등 **물적요건도 충족**하였다.
 - 국내·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**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요를 확보**하는 전략으로,
 - 자본금 증가('17년말: 185억원 → 현재: 378억원) 및 강원도의 지원(135억원)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(1,000억원)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하였고,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**면허기준을 충족**하였다.
- **에어프레미아**는 자본금 179억원(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), '22년까지 항공기 7대(B787-9)를 도입할 계획으로 **인천공항** 기반 미국·캐나다·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.
 - 에어프레미아도 **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요건도 충족**하였다.
 -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**프리미엄 이코노미석***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며,
 - * FSC의 비즈니스석 보다는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 보다는 넓은 공간 제공

-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(1,650억원)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되었으며,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.

□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, '22년까지 항공기 6대(A320급)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·중국·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.

-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, 물적요건도 충족하였다.

- 또한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·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여 수요를 확보할 계획으로

- 자본금 증가('17년말: 150억원 → 현재: 480억원) 및 모기업(AIK)의 지원 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되었고,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.

□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, 최대주주(전 대표이사 엄일석)가 자본금 가장납입(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) 관련 소송 중에 있고,

-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(△59억원) 상태이며,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,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(185억원 변제필요)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.

- 이에 따라,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(일부 노선중단, 임금 체불,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)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.

□ 가디언즈(화물)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(58.6억원) 등 물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,

-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(청주-자카르타) 포화된 노선(청주-시안·충청)이 다수 포함되어있고,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.

향후 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

-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(AOC, 안전 면허)을 신청하여야 하며, 2년 내에 취항(노선허가)을 하여야 한다.
 - *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취소
- 면허심사 과정에서도 항공기 도입계획에 상응하는 안전조직 구성, 인력확보 계획 등 기본적인 항공안전성 검토를 하였고,
 - 이후 운항증명(AOC)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(1,500여개 항목)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 통과시 운항증명을 발급받게 된다.
- 아울러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*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.
 - * 플라이강원(양양공항), 에어프레미아(인천공항), 에어로케이항공(청주공항)
- 또한 소비자·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·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,
 -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%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*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.
 - * 자본금의 1/2이상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잠식 발생시 재무개선 명령 → 재무개선 명령 후 3년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가능
- 향후 조종·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,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,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 -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하여,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.
 - * (조종) 先선발 後교육 대상 확대('18년 7개 국적사 → '19년 8개사)
 - (정비) 맞춤형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('18년 B737기종 → '19년 A320기종 까지 확대), 정비 분야도 先선발 後교육 제도 도입 추진('19.10월) 등

기대 효과

-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 - 차별화된 서비스,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의 제고와 함께 지역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또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가 '19년에만 4백여명, '22년까지 약 2천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,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.
- * 면허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의 경우,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고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노지훈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플라이강원 사업계획

- (설립) '16.4월 설립 ('18.4월 사명변경: 플라이양양 → 플라이강원)
- (사업전략) 양양공항 기반 TCC(tourism convergence carrier) 표방,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의 강원도 관광 방한수요를 확보
 - 외국의 인바운드 관광루트를 인천 입·출국에서 강원양양 입·출국으로 전환하여 강원도 관광(자연환경, 스키장 등)을 활성화하는 전략
- (자본금) '19.2월 현재 378억원
- (항공기) 3년간 B737(189석) 단일기종 9대를 도입·운영할 계획

구분	'19년	'20년	'22년
항공기 재고	3대	7대 (+4)	9대 (+2)

- (노선) 강원 양양공항 發 국내선부터 취항 후('19.10월) 국제선 취항('19.12월), 운항개시 후 3년차까지 25노선으로 확대

취항연도	취항노선 (국내: 3노선, 국제: 25노선)
'19년 하반기	· 국내(울산, 광주, 김포) · 동북아(마카오, 타이페이, 가오슝, 타이중), · 동남아(코타키나발루, 클라크필드, 다낭)
'20년 상반기	· 동북아(나리타, 오사카, 나고야) · 동남아(하노이, 호치민)
'20년 하반기	· 동북아(히로시마, 웨이하이, 옌타이, 산야, 지난, 하이커우) · 동남아(나트랑)
'21년 상반기	· 동남아(시엠립, 칼리보)
'21년 하반기	· 동남아(세부) · 러시아(블라디보스톡)
'22년 상반기	· 동남아(하이퐁) · 러시아(하바롭스크)

참고 2

에어프레미아 사업계획

- (설립) '17.7월 설립 ('17.8월 사명변경: AP에어 → 에어프레미아)
- (사업전략) 인천공항 기반으로 동남아·미국·캐나다 등 중장거리에 프리미엄 이코노미(FSC 비즈니스보다 저렴, 이코노미보다 넓은 공간) 제공
 - 기존 LCC와 달리 중·장거리 운항을 위한 광동체(복도 2열) B787 (항속거리 14,140km)를 운영
- (자본금) '19.2월 현재 179억원 (자본잉여금은 188억원 별도)
- (항공기) 3년간 B787(310석) 단일기종 7대를 도입·운영할 계획

구분	'20년	'21년	'22년
항공기 재고	3대	5대 (+2)	7대 (+1)

- (노선) 인천공항 發 국제선 취항('20.9월), 운항개시 후 3년차까지 9노선으로 확대

취항연도	취항노선 (국제: 9노선)
'20년 하반기	· 동북아(오사카, 나리타, 홍콩) · 동남아(하노이, 호치민)
'21년 상반기	· 미국(LA)
'21년 하반기	· 미국(산호세)
'22년 상반기	· 미국(호놀룰루)
'22년 하반기	· 캐나다(밴쿠버)

참고 3

에어로케이항공 사업계획

- (설립) '16.5월 설립 ('17.5월 사명변경: 케이에어항공 → 에어로케이항공)
- (사업전략) 청주공항 기반의 Ultra LCC(기내식·수하물에 비용청구 대신 초저가 운임 등) 표방
 - 가격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경기남부·충청권의 중국·일본·동남아 아웃바운드 수요를 흡수
- (자본금) '19.2월 현재 480억원
- (항공기) 3년간 A320(180석) 단일기종 6대를 도입·운영할 계획

구분	'19년	'20년	'22년
항공기 재고	3대	5대 (+2)	6대 (+1)

- (노선) 충북 청주공항 發 국제선 취항('19.9월), 운항개시 후 3년차 까지 11노선으로 확대

취항연도	취항노선 (국제: 11노선)
'19년 하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북아(나리타, 나고야, 기타큐슈, 칭다오, 타이페이) · 동남아(하이퐁)
'20년 하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북아(하코다테, 마카오) · 동남아(하노이)
'21년 하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북아(하이커우) · 동남아(가오슝)